

한겨레



홍콩 경찰, 코앞 시위행진 북부에 실탄 발사 홍콩 교통경찰이 11일(현지시간) 오전 홍콩섬 북서부 사이완초에서 '3파(학생·동맹·노동자) 파업'을 위해 출근길 교통방해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와 몸싸움을 하며 해산 작업을 벌이다가, 자신을 향해 다가서는 20대 청년에게 권총을 발사해, 이 남성이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장면(오른쪽 아래 작은 사진)이 영상에 포착됐다. 시위 도중 대학생이 주력사한 데 이어,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를 겨냥해 실탄을 쏘아 중상을 입히면서, 홍콩 시위는 또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 관련기사 16면 홍콩/AFP 연합뉴스



한겨레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첫 운행... "30년만에 실리는 여행"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고속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전문선씨가 강릉행 고속버스에서 출발을 기다리며 활짝 웃고 있다. 전씨는 "30년 만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강릉 여행이 너무 즐겁다. 앞으로 가다가 달지 않는 속도, 고성에도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부터 석달 동안 시범 운행되는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는 10개 버스업체가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다. 각 노선은 하루 평균 2~3회 운행하며, 고속버스 예약시스템(www.kobus.co.kr)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신소영 기자 viaior@hani.co.kr

신문 1면 사진에 대한 단상(斷想)

글 전수영 기자

작금의 홍콩사태를 보면 '나비효과'가 떠오른다. 작은 날갯짓으로 일어난 바람이 태풍으로 번지는 현상 말이다.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강행 추진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지난 6월 초부터 다섯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상화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속에 시위 현장 부근에서 대학생이 떨어져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불상사가 잇따랐다. 특히 무장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시위자에게 중상을 입힌 장면을 담은 SNS 동영상은 사태를 불확실성 가득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동영상은 사진으로 캡처되어 지난 11월 12일자 주요 중앙일간지 1면에 게재됐다. SNS로 생중계되고 유포된 영상은 로이터와 AFP, AP 등 외신사진으로도 발행됐고, 국내 일부 중앙일간지

는 영상을 직접 캡처했다. 신문들은 로이터(경향·국민·한국·서울), AFP(경향·한국·한겨레) 등 외신과 '트위터 캡처'(중앙), '유튜브'(조선), '큐피드 프로듀서 페이스북 캡처'(세계·동아), '큐피드 뉴스'(서울)를 출처로 사진에 바이라인(by-line)을 달았다. 바이라인이란 신문·잡지 등에서 기자·작가 등의 이름을 밝힌 줄이다. 통상적으로 외신사진의 바이라인은 사진 출처를 말한다. 신문 지면에 실린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다. '홍콩/AFP 연합뉴스'와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 즉, 이 사진은 홍콩 지역의 사진으로 프랑스 통신사 AFP가 발행한 사진을 한국의 계약사인 연합뉴스가 배포한 사진이라는 뜻이다. 충격적인 사진으로 이날 아침 신문 또는 포털 뉴스와 SNS 동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홍콩 사태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 애도 등 감정이 교차했을 것이다. 마치 영화 속, 아니 게임 속 한 장면 같다. 낯설면서도 1980~1990년대 우리 시대상과도 겹치는 익숙한 데자뷔가 있다. 복면을 쓴 시위자를 향해 권총을 뽑아 들어 겨누는 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또 다른 시위자,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 소리치는 시위대와 시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간지 1면 사진은 신문의 얼굴이기에 편집자들은 심사숙고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 사진의 뉴스 가치는 크다. 하지만 이처럼 공포스럽고 선정적인 장면을 접할 청소년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방충처럼 연령 등급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권총은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10월 29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을 보자. 30년 만에 버스 여행을 떠나는 설레는 모습의 전문선 씨가 좌석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버스를 타고 교외 나들이를 나서는 여

느 여행객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일반 승객과는 다른 문을 이용했고, 쓰고 있는 전동휠체어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점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10월 28일의 일이다. 이날부터 3개월 동안 서울에서 각각 부산, 강릉, 전주, 당진까지 가는 4개 노선에서 이 고속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이라고 한다. 그 지난한 세월 동안 소수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애써 온 결실이다. 어렵게 시범 운행이라는 물꼬가 터졌으니 다수 시민의 노력이 더해져 정상 운행 되는 노선과 버스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신문 애독자로서 바라는 건 이런 사진을 1면에서 자주 봤으면 하는 것이다. 편집자들이 사진을 고를 때 순기능을 더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가리고 다듬었으면 싶다. ●